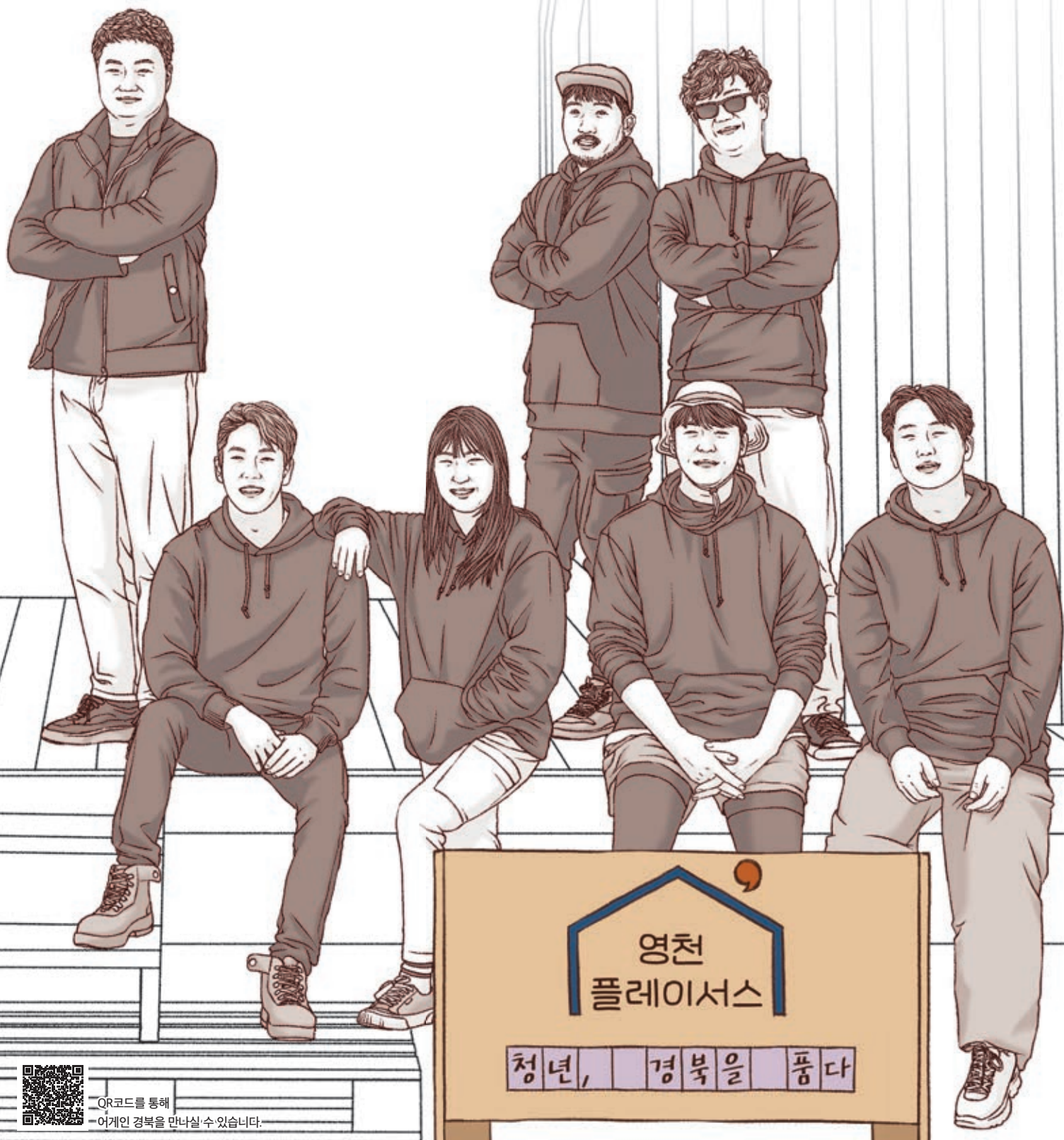


어게인 경북

2022 Winter
Vol. 432



QR코드를 통해
어게인 경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2 Winter Vol. 432
Gyeongsangbuk-do Magazine



미래로 Jump

- 06 스케일업 경북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2022년 경상북도 10대 뉴스
- 08 에듀 경북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 10 매력 경북 메타버스 수도 경북 더 빨리 더 힘차게 앞서갑니다!
- 12 워킹 경북 구미 당기는 구미로 떠나는 겨울 여행
- 18 경북의 맛 제주에는 한라봉 경주에는 경주봉이 주렁주렁



커버스토리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건축 디자인 크리에이터,
영천 '플레이서스'

행복으로 Jump

- 20 청년, 경북을 품다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건축 디자인 크리에이터 영천 플레이서스(PLACERS) 정승권 대표
- 22 명품 명인 국내 최초 밀소주 '진맥소주'가 익어가는 맹개마을 안동 농업회사법인 '밀과 노닐다' 박성호 대표
- 24 즐거움 플러스 유명인이 사랑한 경북의 맛집

어게인 2022 경북



공감으로 Jump

- 28 경북의 유산** 보물로 지정된 경북의 유산
영주 부석사 안양루 · 범종각, 봉화 청암정
- 30 테이스티 경북** 고향으로 돌아온 세 자매가 만든 건강한 생강청
예천 농부창고 진저한생강
- 32 슬기로운 취미생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경북
온 가족이 즐기는 이색 체험

다함께 Jump

- 34 도정 · 의정뉴스** 도정 · 의정소식
- 42 트렌드 줌 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양말 한 켤레
- 43 리마인드 캘린더 엽서**
- 45 알림 마당**

2022 Winter Gyeongsangbuk-do Magazine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최우진 발행일 2022년 12월
문의처 경상북도 대변인실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4313 홈페이지 www.gb.go.kr
어게인 경북은 E-Book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게인 경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상북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게인 경북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음성변환바코드
어게인 경북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행복해도 되었고 조금 더 기뻐해도 되는 시간조차

바쁘게 사느라 놓친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서게 될 우리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꿈을 꾸며 희망찬 2023년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경상북도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JUMP



경북 겨울 풍경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2022년 경상북도 10대 뉴스

1



구미형 일자리(LG BCM) 착공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이 1월 11일 착공식을 갖고 배터리 강국의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2



울진 산불... 복구 위한 노력

지난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은 야산에서 발화한 불씨가 213시간 동안 타오르면서 1만 4140ha의 산림을 태웠지만,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이어지며 복구를 이어가고 있다.

3



‘메타버스 수도 경북’ 천명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를 천명했다. 경상북도는 10월 6일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경상북도를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



태풍 힌남노로 피해 본 포항, 경주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경주 등 경상북도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피해가 심했던 포항은 9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10월 31일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7



봉화 광부 구조 ‘기적의 생환’

지난 10월 26일 봉화 광산에서 지하갱도로 토사가 쏟아지며 두 명의 광부가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 221시간 만인 11월 4일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2022년 한 해 경상북도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로, 성과는 더 큰 가치로 이어가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2022년 경상북도의 주요 성과를 10대 뉴스로 모았다.

4



100조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

경상북도는 6월 17일 도청에서 민선 8기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자유치 100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



새로운 4년, 민선 8기 출범

민선 8기, 경상북도의 새로운 4년이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 정부와 함께 시작되는 지방시대, 경상북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민선 8기 포부를 밝혔다.



8



중부선 문경 ~ 상주 ~ 김천 예타 통과

경상북도 철도정책 추진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부선 문경 ~ 상주 ~ 김천 연결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9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특별법을 다룰 소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10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올인

경상북도는 11월 29일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대국민 선언식을 개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혁신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알아는
면장 한다”

-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한다.

경상북도는 매주 화요일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화공 굿모닝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특강 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강연을 지면에 담았다.

화공 굿모닝 특강이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리고 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4차산업혁명,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올해
12월 초 197회를 넘겼다.

화공 굿모닝 특강 명강연

미래의 농업인 : 네덜란드의 협력 & 혁신모델



요안나 도너바르트駐한 네덜란드 대사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다. 네덜란드는 저지대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해수면 아래에 수많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렇듯 평평한 땅과 풍부한 물 때문에 우리의 주력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이 되었다. 소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유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화훼도 잘 발달돼 있다.

네덜란드의 농부들은 과거에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젊은 농부들은 컴퓨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기를 원한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는 참전국 중 하나였고, 1961년 수교 이래 지난 60여 년간 한국은 네덜란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를 유럽의 투자본부로 하는 한국의 회사들도 많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덜란드에서도 유행하고 있고 한국어 공부에도 관심이 많다. 네덜란드의 기자들이 나에게 묻는다. “한국에서 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이 지금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원자력산업 어디로 갈 것인가?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경북의 원자력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경북이 미래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려면 4세대 원자로인 용융염원자로(MSR, Molten Salt Reactor)의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용융염원자로는 사용후핵연료가 없고 기존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동성이 용이한 동시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굉장히 안전한 원자로다.

MSR 사업은 미래 활용성 배가 측면에서 육상보다는 해양부유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회사를 확보해 총사업비 5000 ~ 6000억 원 정도를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분담을 하게 하고, 새로운 원자력 관련 회사를 설립해서 본사를 경주에 두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미래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동위원소 등 원자력 관련 'Total Solution'사로 발전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원자력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 많이 발전한 이유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제 경주 감포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원자력의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디지털트윈을 이용해 관련 DB를 모두 확보하게 되고, 미래 우리가 가지게 될 빅데이터와 운전의 경험들은 원자력의 미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더 빨리 더 힘차게 앞서갑니다!

경상북도는 10월 6일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지역에 생산유발효과 688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75억 원, 취업유발효과 5353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는 경상북도의 계획을 살펴본다.



돈 되는 · 사람이 몰리는 ·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의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 및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간다. 이를 통해 세계적 브랜드인 한류 콘텐츠를 지속해서 성장·확산시킬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한류 쇼어링(Shoring)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를 조성해 국내 메

타버스 융합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제조) 거점을 허브로 콘텐츠 거점, 인력양성 거점, 디지털 미디어 거점, 혁신스타트업 거점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상북도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연구개발(R&D) 콘텐츠 150건 개발, 마케팅·실증 등 기업 1615개사(社) 지원, 크리에이터 등 인력 6260명 양성, 가상도민(메타인구) 1000만 명 유치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디지털 기회의 땅!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들어 간다.



메타버스 정책 담당할 메타버스과학국 신설



민선 8기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 새로 신설된 메타버스과학국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정책, 과학기술 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 육성, 데이터 및 통계분석, 정보정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미 당기는 구미로 떠나는

겨울 여행!

금오산과 천생산, 태조산 등이 도시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낙동강이 도심 중앙을 흐르는 도시 구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도시답게 볼 것도, 즐길 곳도 많다. 구미 당기는 구미시로 여행을 떠나보자.

WINTER

성리학의 중추 허브

구미성리학역사관

금오산 자락에 자리한 구미성리학역사관은 구미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구미시 최초의 1층 전문공립박물관으로 2020년 10월 개관했다. 구미역사관·성리학전시관·기획전시관 등 3개의 전시관과 목판 탁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 교육·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가면 조선 인재의 반이 영남에 있었고 영남 인재의 반이 구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여유도 누릴 수 있다.

📍 구미시 금오산로 336-13

🌐 www.gumi.go.kr/museum/

🕒 09:00 ~ 18:00(매주 월요일 휴관)

☎ 054-480-2687

R T R P

구미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GEUMRIDANGIL

☑ 금리단길



핫플이 다 모인 거리

금리단길

구미역 후문에서 금오산 입구로 이어지는 길, 바로 금리단길이다. 낡고 허름했던 건물이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 카페나 식당의 간판을 달면서 이곳은 구미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통하고 있다. 처음 골목에 들어서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로움,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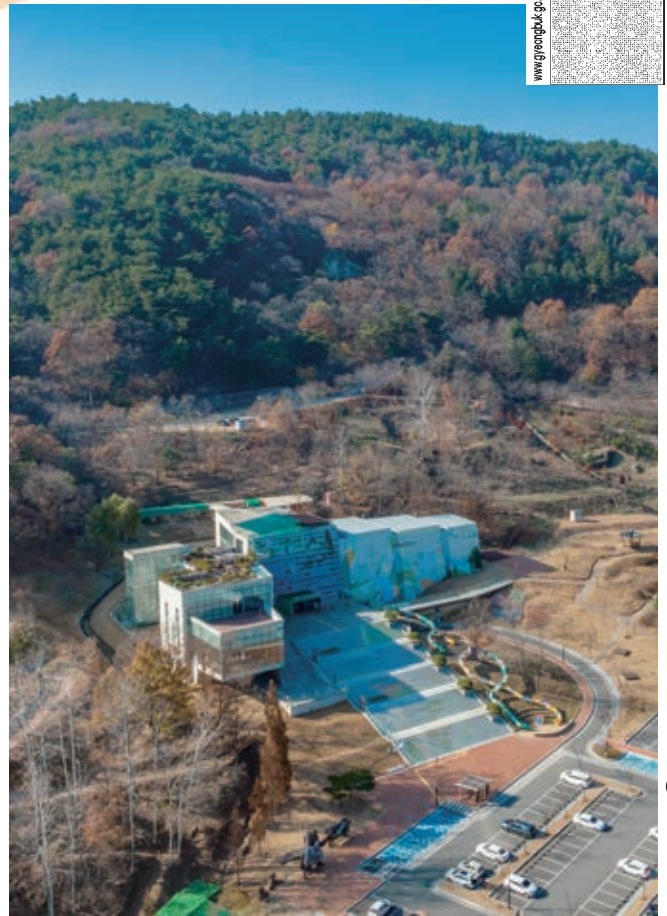
📍 구미시 원평동

모두가 즐거운 자연놀이터

구미에코랜드

자연의 품에서 숨 쉬고 걷고 즐기고 싶다면 구미에코랜드로 가보자. 2022년 대한민국 안심 관광지로 선정돼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이다. 30분간 숲속 여행이 가능한 모노레일을 비롯해 목공예체험, 생태학습체험관, 산림문화관, 숲 체험 등 다양한 자연 친화적 체험이 가능하다.

- 📍 구미시 산동읍 인덕1길 195
- 🌐 <http://gumi.go.kr/ecoland>
- 🕒 09:00 ~ 17:00(매주 월요일 휴무)
- ☎ 054-480-5887



① 구미에코랜드



GUMI ECOLAND

쉼, 체험의 역사문화공간

신라불교초전지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불교초전지는 아도화상에 의해 신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한국불교의 성지이다. 신라불교초전 기념관은 아도화상의 발자취와 신라불교초전의 빛나는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장소로, 총 3관에서 신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해져서 꽃피우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려준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가옥 체험도 인기다. 향낭 체험, 사찰음식, 신라 전통 의상 체험도 가능하다.

📍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www.ginco.or.kr/silla

🕒 09:00 ~ 18:00(매주 월요일 휴무)

☎ 054-480-2140

☑ 신라불교초전지



SILLA BUD

DHIST CHOJEON HALL



제주에는 한라봉
경주에는 경주봉이
주렁주렁

단맛이 강하고 과육이 풍부한
제주도 대표 과일 한라봉. 제주도를
넘어 육지로 물 건너온 한라봉이
경북에서도 재배에 성공하면서
경북의 대표 겨울 과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GyeongjuBONG

경북의 한라봉? 아니 경주봉!

경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10년대 초반부터 남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던 감귤류를 지역 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해 온 한라봉을 경주에 옮겨 심고 재배에 성공하면서 브랜드로 경주봉으로 등록했다. 현재 24개 농가가 9.5ha 규모 시설 하우스에서 경주봉을 키우고 있는데, 일조량이 풍부한 날씨와 우수한 토양 속에서 자라나 빛깔이 좋고 당도·산도 조화가 최상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라봉의 영양

주황색의 한라봉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항산화물질로 노화방지 효과가 있으며 카로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또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 해소와 감기예방에 좋다. 껍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비타민P)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한라봉 보관 팁

감귤류는 기본적으로 추운 곳을 좋아하는 과일이라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 또 소금물에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눌리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tip box



한라봉 닭가슴살 샐러드

주재료(2인분) 닭가슴살 1조각, 한라봉 1/2개, 샐러드 채소 적당량

드레싱 재료 한라봉 1/2개, 설탕 1, 식초 1, 기름 1술, 소금 약간

만들기

- ① 닭가슴살은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서 220°C의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 익힌다.
- ② 익힌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썰고 한라봉은 한입 크기로 썰고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 ③ 믹서에 분량의 드레싱 재료를 넣고 간다.
- ④ 그릇에 샐러드 채소, 한라봉, 닭가슴살을 담고 드레싱을 곁들인다.

한라봉과 쌀 식빵에 우유 달걀물을 붓고 예열한 오븐에서 구운 '한라봉 쌀빵푸딩'





영천 플레이서스(PLACERS)

정승권 대표

tvN ‘바퀴 달린 집’을 본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 마치 실제 집을 옮겨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바퀴 달린 집이다. 그 집을 만든 주인공, 영천 ‘플레이서스(PLACERS)’ 정승권 대표를 만났다.



건축을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데서 출발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플레이서스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서울 대형건축회사에서 10여 년간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정승권 대표(41)가 2019년 1월 창업한 건축 디자인 회사이다. 대형건축물 디자인 및 설계, 신규 사업 발굴, 인큐베이팅 업무를 수행해오던 그는 어느 날 ‘건축’이라는 과정을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가 떠올린 것은 ‘공장 제조 후 현장 운반설치’ 방식이었고, 곧장 창업에 뛰어들었다. 때마침 영천시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1기에 선정되면서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됐고 빠르게 상품 출시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플레이서스가 작업한 건축물



플레이서스(PLACERS) 정승권 대표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건축 디자인 크리에이터

플레이서스

📍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175

🌐 www.placers.co.kr





플레이서스가 작업한 건축물



세컨하우스나 스테이, 단지 개발에서 두각

정승권 대표는 새로운 시도를 인정받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했다. 트렌디한 공간과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로컬 환경에 최적화된 시공 방법을 통해 기간,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했다. 또 여러 '건축' 모델을 디자인하고 개발해 '상품'으로 출시함으로써 건축주들의 마음을 열고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 이 같은 상품은 세컨하우스나 스테이, 단지 개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물이 놓여질 땅을 디자인(마스터플랜)하고 행정 사항,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 등 다소 복잡한 절차들을 원스톱으로 일원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축주의 만족을 높였다.



건축 상품 접할 수 있는 권역별 쇼룸 여는 꿈

최근에는 모듈러 방식 설계 기술과 효율적 공간 구성의 노하우를 살려 tvN '바퀴 달린 집' 시즌2와 시즌4의 집을 제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기 상한가를 누리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초보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학교'를 열어 올바른 건축주 입문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도 애정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다. 집짓기학교는 청년층의 영천 유입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승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 상품을 쉽게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권역별로 사업장 '쇼룸'을 여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쇼룸은 저희 건축 상품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유사 사업체의 사업장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밀소주 ‘진맥소주’가 익어가는 맹개마을

안동 농업회사법인 ‘밀과 노닐다’ 박성호 대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안동시 도산면 맹개마을.
‘해가 잘 드는 외딴 강마을’이라는 뜻의 이 마을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농업회사법인 ‘밀과 노닐다’
박성호 대표가 터를 잡으면서부터다. ‘IT 전도사’에서
‘농부’로 변신한 그가 최근 ‘양조인’으로 다시 거듭난 이유가 궁금했다.



맹개마을에 매료돼 2007년 귀농

독일 유학을 다녀오고 서울에서 IT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박성호 대표(53)는 사업 10년 차에 접어들 2006년부터 도시를 떠날 결심을 했다. 남한강, 북한강 등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강을 끼고 있는 땅을 찾아 다녔다. 우연히 안동에 발길이 닿았고 도산서원 인근의 풍경에 매료됐다. 1년간 안동을 찾았고, 그러다 맹개마을을 알게 됐다. 공장 땅을 사고 2007년 집을 싸서 내려왔다.

맹개마을에 터를 잡은 박성호 대표는 약 10만㎡(3만 평)의 농지에 밀과 메밀을 심었다. 산골 마을의 환경을 견디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돈이 되지 않았다. 고민의 연속이었고 6~7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 밀가루에서 밀쌀, 제빵으로 종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밀밭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체험과 숙박 서비스도 시작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맹개마을 전경



밀과 메밀농사짓다 술 만들기에 도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건 술이라는 데 생각이 닿았다. 안동은 소주 문화가 이어져 온 만큼 밀소주를 만들고 싶었지만, 밀소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했기에 원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우연히 1540년 조선 중종 때 안동 유학자 김유가 쓴 '수운잡방(需雲雜方)' 번역본을 보게 됐다. 김치, 장, 식초 등 조선시대 널리 알려진 조리법이 기록된 이 책에 밀소주, 바로 '진맥소주'의 제조법이 있었다. 놀랍고 반가웠다. 고서의 방식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밀에 밀로 빚은 누룩, 물로만 증류해 소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2019년 '진맥소주'를 세상에 내놓았다.

술이 익어가는 숙성실을 소개하는 박성호 대표



맹개마을

📍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62-135

🌐 https://www.instagram.com/mengemaueul_official



명품 진맥소주와 명품 맹개마을로 이어지는 꿈

'진맥소주'는 향아리에서 최소 1년부터 3년까지 숙성한 3종류(22도, 40도, 53도)와 오크통에서 숙성한 오크 소주까지 4가지 종류를 선보이고 있다. 싱글몰트 위스키 향이 난다거나 꽃과 과일 향이 난다며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 연속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에서 진맥소주 53도와 오크 숙성 소주는 '더블 골드' 메달을 받으며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진맥소주를 향한 반응이 뜨거운 만큼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설비 증축이 필요해졌다. 박성호 대표는 설비 증축이 1차 목표이고, 맹개마을을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마을로 만드는 것이 죽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꿈이 됐다.

“농업을 가장 꽃 피울 수 있는 분야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위스키, 와이너리 마을처럼 진맥소주가 명품 술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 마을로 대를 이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꿈입니다.”

유명인이 사랑한 경북의 맛집

사는 즐거움 중의 하나,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그중 유명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경북의 맛집에서라면 더 특별한 추억을 쌓는 것도 가능하다.

HOT PLACE



배우 김태리/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긴 곳

안동 '태리커피'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35번 국도 변에 위치한 '태리커피'는 배우 김태리와 전 배우선수이자 해설가인 한유미가 다녀간 이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곳은 매일 새벽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는 로스터리 카페다. 절묘한 맛의 앙상블을 자랑하는 아인슈페너의 인기가 높다. 또 유기농 재료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쿠키와 음료도 인기다. 초코칩오트밀쿠키와 피넛 쿠키의 경우 안동 도산면에서 생산된 유기농 통밀을 사용해 매일 아침 구워내고 생강, 오미자는 지역 농장에서 공급받아 건강 음료로 제공하고 있다.

📍 안동시 와룡면 태리 12(모산골길 5)

🕒 11:00 ~ 19:00(월·화 휴무, 연휴에는 오픈)

🌐 http://www.instagram.com/life_in_tarry



배우 김영철이 동네 한 바퀴 돌다 찾은 맛집 포항 '철규분식'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영철이 다녀간 ‘철규분식’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포항 구룡포 대표 맛집이다. 매일 직접 만드는 팔소와 단팔죽,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이스트를 사용해 발효하지 않고 아랫목에서 발효 시킨 반죽으로 만드는 찌뽕은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유명하다. 갓 찌내 따끈한 빵을 한입 베어 물면 촉촉한 팔소가 흘러 나온다. 그러나 철규분식의 찌뽕을 한층 더 맛있게 먹는 법은 단팔죽 세트를 함께 시킨 후, 찌뽕을 단팔죽에 찍어서 먹는 것이다. 스위스 풍두가 떠오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조합은 환상적이다.

-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2-2
- ☎ 054-276-3215



식객 허영만의 선택을 받은 영덕 대표 맛집 영덕 '영덕물가자미전문점'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소개되며 허영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영덕물가자미전문점’은 자연산 물가자미로 한 상차림을 내 놓는 영덕 대표 맛집이다. 물가자미 정식은 물가자미 회부터 구이, 찌개가 나오며 메인메뉴와 반찬 모두 푸짐하고 알차다. 신선한 미역과 다진 마늘이 올라간 가자미 회에 초장을 뿌려서 비빈 후 한 입에 쏙 넣으면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바다 향과 함께 입안에서 함께 어우러진다. 가자미의 뽀얀 흰 살을 찌개에 적셔먹는 맛도 일품이다. 비린내 없이 고소한 맛이 나는 가자미 구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이다.

- 📍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계로 939
- 🕒 10:00 ~ 20:00(브레이크 타임 15:00 ~ 17:00)
- ☎ 054-734-5292



낙화야! 낙화야!

하늘에서 불꽃비가 내리고

땅에서 줄불이 강물을 가로지르면

뜨겁고 화려한 수채화가 피어난다.

안동 하회선유줄불놀이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산23-3

공감으로



JUMP

보물로 지정된 경북의 유산

영주 부석사 안양루 · 범종각, 봉화 청암정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범종각, 봉화 청암정이

10월 3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북의 대표 유산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16세기 사찰 문루 건축을 대표하는

영주 부석사 안양루

영주 부석사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에서 극찬한 고려시대 건축물인 무량수전(無量壽殿)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석사 안양루는 무량수전 앞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16세기 사찰 문루 건축을 대표한다. 사찰의 진입 축을 꺾어 무량수전 영역에 진입하도록 배치한 점, 무량수전(국보)으로 가는 주출입문이 누각 아래로 진입하도록 한 형태인 점, 공포와 대들보의 구성 등에 조선 중기 또는 그 이전에 사용된 오래된 기법이 남아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축물

영주 부석사 범종각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 중층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범종각은 일반적으로 사찰 좌우에 배치되지만, 부석사 범종각은 사찰 진입 중심 축선에 자리 잡고 있다. 가운데 칸에 계단을 뒤 안양루로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이고 지붕 내부에 중창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남아 있다.



영주 부석사 범종각

17세기 이전 건축물 특징을 지닌 정자

봉화 청암정

봉화 청암정은 안동권씨 충재종택 경역 안에 있는 정자로 현재 인근 석천계곡과 함께 명승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정자는 경상도 일원에 분포하는 정(丁)자 형태 평면의 정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됐다. 쌓여담이 가운데 창호와 창호 사이에 문설주를 설치한 영쌍창이 남아 있다. 대들보를 비롯해 주요 구조가 17세기 이전 건축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봉화 청암정

고향으로 돌아온 세 자매가 만든
건강한 생강청

예천 농부창고 진저한생강

예천군 보문면 학가산 자락에서는 엄마가 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세 자매가 만든 건강한 생강청이 진하게 담겨지고 있다. 센스 있는 작명에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농부창고의 '진저한생강'이다.

📍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3-13

🌐 www.nongbus.co.kr

☎ 070-8839-8881

(왼쪽부터) 황미숙, 황영숙, 황현미 씨 자매



고향 예천으로 돌아온 세 자매

예천에서 나고 자란 황미숙(45), 황영숙(43), 황현미(41) 씨 세 자매는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평소 고향에서 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현재 농부창고 대표인 둘째 황영숙 씨가 남편을 설득해 2015년 고향에 내려와 터전을 잡은 후 언니와 동생을 설득했고, 마음이 통한 세 자매는 고향에서 재회했다.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무작정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였다. 참깨에 길이 보였다. 예천 읍내에는 기름집이 60여 개가 있을 정도로 참깨 농가가 많아 원료 공급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친정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기름집에 가서 2년간 노하우를 익힌 후 2017년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다. 이곳에서 국내산 100% 참깨를 사용해 저온에서 착유한 참기름은 맛과 향이 좋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주문량이 많아져 자매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지자 아이 친구 엄마들도 일손을 보탰다. 손발을 맞추며 점점 자리를 잡는 모양세였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그해 여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참깨 농사가 흉작이 되면서 국산 참기름 시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그해 일을 접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수입산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더더욱 용납되지 않았다. 안정적인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국산 100%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국산 생강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진저한생강



농부창고가 만든 들기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생강

그때 떠올린 것이 생강이다. 예천, 특히 보문면은 참깨 농사 다 음으로 생강 생산량이 많다. 생강을 활용해 생강청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고 연구에 돌입했다. 생강의 형태, 사용할 설탕 종류, 배합 방법, 제조 온도 등 최고의 조합을 찾기 위한 1년 남짓한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진저한생강'을 출시했다. 생강을 의미하는 영어 '진저'와 우리말 '생강'을 합쳐 지은 '진저한생강'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데다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부여해 줘 단숨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100% 국내산 재료에 물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설탕만 더해 만든 생강청은 까다로운 소비자들도 반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생강이 면역력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꾸준히 주문이 이어지는데다, 작년 말 예천이 생강 주산지로 등록되면서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됐고, 거기다 생강차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되면서 주문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월 평균 1만5,000병이 판매되고 있다.

“여전히 매출 1위는 참기름이지만, 진저한생강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고 다른 제품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름만 들으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오래가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경북

온 가족이 즐기는 이색 체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찾는다면
이곳을 주목해 보자.
재미있고 신기한 첨단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곳부터
게임을 하며 관광지를 걷는 야외 방탈출 게임,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농장까지 다양하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로봇의 세계 포항 '로보라이프뮤지엄'

포항공과대학교 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보라이프뮤지엄'은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교육기관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생각하는 로봇'이 반겨주는 로보라이프뮤지엄에 들어가면 지능로봇 흥미관·체험관·탐험관 등 로봇 관련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구성한 3개 전시관에서 국내 상용 로봇의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로봇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모든 체험과 관람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 위치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층

📅 예약 <http://m.kiro.re.kr/>





야외에서 즐기는 방탈출 게임 경주 '물오름달 열댓새'

경주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방탈출 게임에 도전해 보자. '사이시옷'에서 내놓은 '물오름달 열댓새'는 경주읍성 앞 사이시옷 사무실을 시작으로 경주읍성 곳곳을 다니며 미션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미션 해결을 위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여행의 재미가 자연스레 따라오는 매력이 있다. 키트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는 MZ세대부터 경주로 여행 온 가족 단위 고객까지 다양하다.

❶ 위치 경주시 동문로 38

❷ 예약 네이버에서 '물오름달 열댓새' 검색해 구입한 다음 예약 후 방문



알파카 먹이 주기 등 동물과의 교감 칠곡 '팔공산 알파카'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팔공산 알파카'는 동물과 교감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동물 농장이다. 평생 동물을 좋아했던 김병규(61) 대표는 5년 전 귀농하면서 동물 농장의 꿈을 구체화했고, 지난해 드디어 4000평 규모로 열었다. 이곳에 가면 알파카, 무플론, 기니피그, 토끼, 염소, 거위 등 팔공산 공기를 마시며 사는 건강한 동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놀면서 먹이 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계절에 따라 다육식물 심기, 야생화 화분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❶ 위치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921-21

❷ 예약 www.팔공산알파카.com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대국민 선언식

경상북도는 11월 29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대국민 선언식'을 개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는 지역의 산업 혁신역량을 결집해 반도체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혁신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지방정부 1호 K-studio 개소

경상북도는 11월 29일 구미상공회의소 5층에서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 Digital Export Center) '경북 K-스튜디오' 개소식을 열었다. 경북 K-스튜디오는 스튜디오존, 디지털 교육과 실습 공간, 화상회의실, 무역지원실을 갖추고 있다.



국비 및 신공항특별법 관련 국회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월 28일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재부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경상북도는 11월 25일 대구 호텔인터볼고 컨벤션홀에서 '2022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10개국 대사를 비롯해 약 10개국 외교관 및 대구 경북국제교류협의회 38개국 협회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해 민간외교를 펼쳤다.



경북사과 우수성 알린 홍보행사

경상북도는 지역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2022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개최했다. 지역 15개 사과주산지 시·군에서 생산한 사과를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행사(6천 원/2.5kg)를 실시하고 '경북사과 명품관'도 운영했다.



정기룡 장군 기념비 제막식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11월 25일 오후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충의공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 전승 기념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정기룡 장군은 무기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주성을 탈환해 승전의 기세를 잡았으며, 무예와 지략이 뛰어나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다. 기념탑은 정기룡 장군 탄신 460주년을 맞아 전국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창호 조각가의 작품이다.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식 및 CNGR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경상북도는 11월 24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포항시, 지역 산학연관 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콘퍼런스 2022’를 개최했다. 특히, 사전행사로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식과 글로벌 배터리 소재기업인 CNGR의 1조 원 규모의 황산니켈,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경상북도 산림대상 수여식

경상북도는 11월 24일 ‘제12회 경북 산림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단체부문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교장 황병숙)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개인부문은 2004년 임업후계자와 2019년 독림가로 선정돼 248ha 산림을 가꾸고 연간 14만 본 용기묘 생산 등 모범적 산림경영과 전문지식 보급에 힘써온 한창훈(52) 씨가 수상했다.



봉화소방서 개서식

봉화읍 등 10개 읍·면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봉화소방서가 11월 21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8월 착공한 봉화소방서는 총 12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82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 건물과 지상 4층의 연면적 287㎡ 소방훈련탑 등 2개동으로 건립됐다.



경상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경상북도는 11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경상북도는 11월 18일 경주 노동동에 구축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기업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는 11월 16일 오전 도청 안민관 전정에서 새마을부녀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도 함께해 2000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지역 봉사정신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일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하며, 연말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배한철 의장은 “십시일반 모금한 회비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경북도립대학교 혁신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1월 7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150여 명의 교직원 및 관계자와 함께 ‘경북도립대학교 혁신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북도립대학교 혁신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김병태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배한철 의장 및 도의원, 이태원 희생자 조문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11월 3일 도청 동락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입법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위촉 수여 및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4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2년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2022년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이 구미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올해 첫 실시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구미여자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순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진행했다.



2022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포항에서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8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포항 라한호텔에서 이틀간 개최했다.



2022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18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 8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이후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4명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7일 의장실에서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금태환(동부권) ▲이상욱(서부권) ▲정상환(남부권) ▲안형진(북부권) 변호사로 향후 2년간 권역별로 나누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독도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특위 구성 완성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12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사령탑으로 허복 위원장(구미)과 조용진 부위원장(김천)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10월 5일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덕규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김원석 의원(울진)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는 원전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10월 5일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이날 열린 제1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이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5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이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위원장에는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이 선임됐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스타일을 완성하는 양말 한 켤레

바짓단 아래, 보일락말락한 곳에 존재감 없이 자리했던 양말이 속 올라왔다. 바짓단 아래 감추거나 아예 보이지 않아야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패션의 '만년 조연' 양말이 주연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저렴하지만, 존재감 큰 양말

존재감 없던 양말의 시대는 지났다. 패션을 아는 이들은 매일 날씨와 기분에 따라 양말의 색깔과 무늬를 골라 신으며, 한 달에 2번 이상 새 양말을 산다. 아무리 비싼 양말이라도 2만 원이 넘지 않지만, 비싼 옷을 살 때만큼이나 그 만족감은 크다는 이유다. 특히 최근엔 바지 기장이 짧아지고,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샌들에 양말을 매치하는 등의 시도가 많아지면서 양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양말 패션은 '모내기 룩'이다. 레깅스 위에 양말을 신거나, 조거 팬츠(바지 밑단을 시보리 처리한 운동복) 위에 스포츠 양말을 끌어 올려 신는 모습이 마치 모내기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구두와 양말의 똑똑한 매치법

조금 튀고 싶다면 톤온톤 =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는 동일한 색상 내에서 톤의 차이를 두는 톤온톤(Tone On Tone) 배색을 활용하면 안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코디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컬러의 기준을 바지나 구두에 모두 두어도 무방하다.

패션 센스를 뽐내고 싶다면 보색 =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과감하게 보색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격식 없는 자리라면 검정 구두에 빨간 양말처럼 강렬한 느낌으로 색을 맞추거나 화색, 녹색, 갈색 등의 조화로운 믹스매치를 시도해보자.

경쾌한 분위기에는 패턴 = 마름모무늬가 겹쳐진 아가일 패턴이나 작은 도트 무늬(물방울무늬)는 대부분의 구두에 잘 어울려 쉽게 코디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 줄무늬 두께나 컬러의 개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캐주얼 슈즈에 다양한 컬러 조합의 양말을 매치하면 경쾌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TIP. 양말도 구독 시대!

스타트업 니그나스가 11월 중순 남자 양말 정기 구독 플랫폼 '삭스어클락(Socks O Clock)'을 런칭했다. 삭스어클락은 바쁜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양말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고민을 덜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양말을 배송해주는 양말 정기구독 서비스다. 고객은 직접 원하는 양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삭스어클락 홈페이지 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천 양말을 큐레이팅 받을 수도 있다.

구독신청 : dongji.com/socks/



1 January 202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구미 금리단길



김천 수도산 치유의 숲 자작나무 설경

2 February 202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절취선 ✂

보내는 사람

이름 나이 세(남/여)

주소

※ 구독 신청(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함)

주소 변경 ☐ 신규 ☐

(☐ 체크해 주세요)

어게인
2022 경북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 송 유 효 기 간
2021. 4. 1.~

안동풍산우체국
제40012호

받는 사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대변인실

어게인 경북 담당자 앞

36759

절취선 ✂



구미 금리단길

1 January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영양 자작나무숲

2 February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❶ '어게인 경북'을 읽고 난 소감?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❷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어게인 경북'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 기사 내용 ☐ 편집·디자인 ☐ 부수 확대·배부 방식 ☐ 종이 질·책 크기 ☐ 기타()

❹ 나만 알기 아까운 내 고장의 맛과 멋을 추천해 주세요.

❺ '어게인 경북'을 접하게 된 사연(장소)은?

☐ 관공서 방문 ☐ 지인 ☐ 홈페이지 ☐ 기타()

청년의 꿈 경상북도가 응원합니다!



청년정책 청년의 자립과 도전 그리고 참여를 지원합니다

- 청년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발전소 운영 등



청년일자리 신성장 분야(메타버스, AI 등) 혁신 일자리와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 미래형 신산업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청년CEO 심화육성 사업 등



청년복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거, 복지포인트 등 청년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청년애꿈 수당 등



청년문화 소통 청년의 건전한 문화, 활동 그리고 소통을 지원합니다

- 청년 홈페이지 “청년e끌림” 구축 운영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등



청년정책가이드북 QR코드

• 문의처

경상북도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4-880-2758
청년일자리팀 054-880-2762

청년복지권익팀 054-880-2760
청년문화소통팀 054-880-2773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2.8.22(월) 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